

중소·중견기업 2題

“성장 과실 中企까지 달게 국회가 입법해달라”

김기문 회장, 조정식 의장 예방
中企 입법현안 전달·제도개선 건의
납품대금 지급기일 30일 단축 요청
기업승계·계속고용 지원확대 촉구
조달청장에 적정가격 보장제도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전 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취임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최근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효과로 인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은 대출연체율, 법안파산신청이 치솟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 회장 외에도 중기중앙회에선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한병준·강동한·김석원 부회장이 함께 했다. 아울러 김 회장 일행은 ▲을

(乙)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및 연동제 인착 지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기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안 개선 ▲고령인력 계속 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 입법 현안을 건의했다.

‘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은 중소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담합 배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들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일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여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자는 게 중소기업계의 바람이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염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로 용어를 바꿔 정책범위를 확장하고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하자는 목소리다. 김 회장은 이날 제22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도 전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백승보 조달청장을 서울 여의도 본회로 초청, 조달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조달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제품의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공영홈쇼핑·홈쇼핑

추석 앞둔 협력사에 판매대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16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 완료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3일 각각 지급한다.

450억 규모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등 자금부담 완화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라면 각각 15일과 2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이 협력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홈앤쇼핑도 약 15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협력사, 소상공인 등 약 1000여 곳에 달한다. 홈앤쇼핑은 업계 최단 수준의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균 지급 주기가 업계 대비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빠르다. 홈앤쇼핑의 조기 지급은 단순한 조기 지급을 넘어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목소리 커져야 성장 사다리 튼튼해진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 169곳에 친필서신
“무한경쟁 돌파 해법 자강과 연대”
중견기업 10년새 2979→6474곳
매출 1030조·고용 175만명 돌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더 많은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의 말을 할 때,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지난 14일 산업별 우수 중견기업 169개 대표에게 보낸 친필 서신에서 “오늘과 미래 세대의 삶을 아울러 지탱할 경제 대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현



장에서 버려낸 깊은 경륜을 나눠 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 회장은 서신을 통해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토론과 실천의 장에 대표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무한경쟁의 시대, 혼돈의 국제 정세를 돌파할 해법은 자강과 연대”라면서 “침단을 종횡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K-뷰티, K-푸드, K-콘텐츠, K-컬처 등이 견인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일신하고 기업 간의 강고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존속을 담보할 장기적인 산업 기반의 체계적 기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시행후 10여년 간 중견기업 숫자는 2979개에서 6474개로, 총

매출은 483조6000억원에서 1030조 5000억원으로, 기업들의 총 고용은 89만8000명에서 175만7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최 회장은 “AI 혁명,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패를 가를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서 경제의 ‘허리’를 바로 세워 후대를 책임질 조화로운 풍요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에 중견기업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올해 상반기 사무국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원사 방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회원사 소통 확대와 신규 회원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metro

SK인텔릭스 ‘나무엑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AI 웰니스 로봇 현지 공개

SK인텔릭스의 AI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16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주요 정부 인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엑스 공식 런칭 행사를 열고 글로벌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나무엑스가 추진하는 첫 해외 시장 확장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을 통해 기존 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AI 및 데이터 센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나무엑스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혁신적인 AI 웰니스 로봇을 현지에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인텔릭스 나무엑스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첨단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이번 런칭 행사를 통해 나무엑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나무엑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세계적인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학 중심 청년창업 지원 확대

부산대서 대학창업 페스티벌 개최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곳곳에서 열었다.

중기부는 16일부터 이틀간 부산대에서 ‘2026 대학창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전북대, 한남대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행사는 대학 교육·실습과 취·창업을 연계해 청년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 가진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식’에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과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의 창업 준비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별도로 노용석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창업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전국 11개 창업중심대학의 권역별 예

선을 거친 22개 대학 창업팀, 약 100명이 참가한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해커톤’도 진행했다. 참가팀은 사업모델 고도화·투자유치·판로개척·글로벌 진출 등 4가지 미션 중 1가지를 선택해 경쟁을 펼쳤다.

해커톤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5개 팀에게는 중기부 장관상과 최대 1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노 차관은 “대학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경험하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창업중심대학을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Seoul)에서 창업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경험과 지원을 나누는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별도로 가졌다.

또 인하대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별도로 열고 청년 창업가 및 대학생들과 추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하이넷, 선진그룹 등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 수도권 수소버스 480대 보급

선진그룹과 수소 모빌리티 확대 협약
2032년까지 수소버스 단계적 도입

현대자동차가 대형 운수업체와 손잡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단순히 차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충전시설을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등 충전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며 국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대로 사옥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선진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원가스수소충전협회와 ‘충전 인프라 혁신 기

반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그룹의 수도권 주요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용량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개 운수법인을 운영하는 선진그룹은 약 170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총 48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김포·파주 소재 차고지의 기존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ysw@